포털 댓글 정책 관련 시사저널 여론조사

2023.06.21





■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의뢰 기관	■ 시사저널
조사 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표 본 수	■ 1001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 답 률	■ 1.6% ¹⁾ (총 통화시도 63,482명 중 1001명 응답)
표본 구성	■ 무선 100%
표집 방법	■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통계 보정	■ 림가중 방식으로 연령대별·지역별·성별 가중치 부여 (2023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 기간	■ 2023년 6월 19일~21일 (3일)
조사 기관	■ 시사리서치

■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기초 사항	■ 연령 ■ 지역 ■ 성 ■ 정치 성향
조사 내용	■ 포털 댓글 이용률 ■ 다음 타임톡 개편 인지도 및 긍부정 평가 ■ 포털 댓글 정책 유지에 대한 입장 및 여론 형성 영향 ■ 댓글 실명제 ■ 포털 AI편집에 대한 평가 및 포털 뉴스의 긍부정 평가

○ 자료 해석상의 유의점

- 문항별 결과는 변수별로 백분율(%)을 산출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이 과정에서 백분율 합산시 반올림 오차(99.9% 혹은 100.1%)²⁾가 나타날 수 있음.
- 표본조사이므로, 결과 값의 해석 시 표본 오차를 고려해야 함.
- 표본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¹⁾ 본문항 1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보지 않는다는 이용자에 대한 조사 중단 설계로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짐.

²⁾ 반올림 오차란 실제 전체 합계는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계가 100.0%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오류가 아님.

■ 응답자 특성

	7 H	조 사	완 료	목 표	할 당 3)	가중값
_	구 분		비율(%)	사례수(명)	비율(%)	배율
● 전	! 체 ●	1001	100.0	1000	100.0	1
	만 18~29세	70	7.0	165	16.5	2.3595
	30대	94	9.4	148	14.8	1.5760
연령	40EH	191	19.1	183	18.3	0.9591
218	50대	297	29.7	195	19.5	0.6572
	60대	231	23.1	169	16.9	0.7323
	70세 이상	118	11.8	140	14.0	1.1876
	서울	257	25.7	187	18.7	0.7284
	경기/인천	307	30.7	317	31.7	1.0336
	부산/울산/경남	150	15.0	150	15.0	1.0010
권역	대구/경북	86	8.6	98	9.7	1.1407
	광주/전남/전북	75	7.5	99	9.7	1.3213
	대전/세종/충청	90	9.0	108	10.7	1.2012
	강원/제주	36	3.6	41	4.3	1.1400
성	남성	650	64.9	497	49.7	0.7654
70	여성	351	35.1	503	50.3	1.4373
	진보	318	33.9			
정치성향	중도	393	41.9			
	보수	228	24.3			

^{3) 2023}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할당

Q1. 선생님께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읽을 때 기사 하단의 댓글을 보는 편입니까, 보지 않는 편입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자주 본다	② 때때로 보는 편	③ 별로 보지 않아	④ 전혀 보지 않아	⑥ 잘 모르겠다	①+② 본다	③+④ 안 본다
•	전 체 ●	1001	44.6	36.4	16.4	1.8	0.9	81.0	18.2
	만 18~29세	70	55.7	32.9	10.0	0.0	1.4	88.6	10.0
	30대	94	59.6	27.7	10.6	0.0	2.1	87.3	10.6
연 령	40대	191	54.5	34.0	9.4	1.6	0.5	88.5	11.0
댕	50대	297	41.1	39.1	17.8	2.0	0.0	80.2	19.8
	60대	231	36.4	39.8	19.9	3.9	0.0	76.2	23.8
	70세 이상	118	28.8	38.1	28.0	1.7	3.4	66.9	29.7
	서울	257	44.7	38.5	11.7	3.5	1.6	83.2	15.2
	경기/인천	307	48.2	33.2	17.3	1.0	0.3	81.4	18.3
-1	부산/울산/경남	150	42.7	36.7	18.0	2.7	0.0	79.4	20.7
권 역	대구/경북	86	40.7	30.2	25.6	2.3	1.2	70.9	27.9
	광주/전남/전북	75	34.7	44.0	18.7	1.3	1.3	78.7	20.0
	대전/세종/충청	90	40.0	42.2	15.6	1.1	1.1	82.2	16.7
	강원/제주	36	41.7	38.9	19.4	0.0	0.0	80.6	19.4
14	남성	650	43.2	35.8	17.5	2.3	1.1	79.0	19.8
성	여성	351	45.0	38.2	15.1	1.4	0.3	83.2	16.5
정	진보	318	50.3	33.3	14.8	0.9	0.6	83.6	15.7
치 성	중도	393	45.3	36.6	15.8	2.0	0.3	81.9	17.8
향	보수	228	39.5	38.6	18.4	3.1	0.4	78.1	21.5

Q2.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선 뉴스 하단에 댓글을 없애고 24시간 동안 채팅형태로 의견을 나누는 타임톡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알고 계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	전 체 ●	1001	37.3	62.7
	만 18~29세	70	32.9	67.1
	30대	94	38.3	61.7
연 령	40대	191	54.5	45.5
댕	50대	297	44.1	55.9
	60대	231	30.7	69.3
	70세 이상	118	15.3	84.7
	서울	257	43.6	56.4
	경기/인천	307	38.8	61.2
71	부산/울산/경남	150	37.3	62.7
권 역	대구/경북	86	36.0	64.0
	광주/전남/전북	75	36.0	64.0
	대전/세종/충청	90	35.6	64.4
	강원/제주	36	16.7	83.3
ДН	남성	650	40.3	59.7
성	여성	351	34.5	65.5
정	진보	318	50.3	49.7
치 성	중도	393	39.9	60.1
향	보수	228	25.9	74.1

Q2-1. (Q2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에 한하여) 그렇다면 선생님께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댓글을 없애고 타임톡 서비스로 바꾼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긍정적	② 조금 긍정적	③ 다소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⑤ 잘 모르겠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	전 체 ●	383	11.1	14.8	16.9	52.2	5.1	25.9	69.1
	만 18~29세	23	26.1	8.7	17.4	47.8	0.0	34.8	65.2
	30대	36	13.9	16.7	22.2	44.4	2.8	30.6	66.6
연 령	40대	104	6.7	8.7	13.5	65.4	5.8	15.4	78.9
명대	50대	131	7.6	15.3	17.6	54.2	5.3	22.9	71.8
	60대	71	15.5	16.9	12.7	50.7	4.2	32.4	63.4
	70세 이상	18	11.1	38.9	27.8	11.1	11.1	50	38.9
	서울	112	9.8	14.3	15.2	56.3	4.5	24.1	71.5
	경기/인천	119	10.9	12.6	20.2	50.4	5.9	23.5	70.6
	부산/울산/경남	56	14.3	14.3	7.1	60.7	3.6	28.6	67.8
권 역	대구/경북	31	6.5	29.0	16.1	41.9	6.5	35.5	58
	광주/전남/전북	27	14.8	0.0	22.2	63.0	0.0	14.8	85.2
	대전/세종/충청	32	9.4	21.9	18.8	40.6	9.4	31.3	59.4
	강원/제주	6	0.0	16.7	16.7	66.7	0.0	16.7	83.4
λ ⊣	남성	262	11.8	13.0	15.6	56.5	3.1	24.8	72.1
성	여성	121	8.3	18.2	18.2	46.3	9.1	26.5	64.5
정	진보	160	10.0	9.4	17.5	60.0	3.1	19.4	77.5
치 성	중도	157	7.6	16.6	17.2	52.9	5.7	24.2	70.1
향	보수	59	20.3	22.0	13.6	39.0	5.1	42.3	52.6

Q3. 선생님께선 네이버와 같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뉴스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 진하는 댓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순기능이 있으므로 계속 유지해야	② 부작용이 있으므로 아예 폐지해야	③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1	65.3	24.1	10.6
	만 18~29세	70	65.7	21.4	12.9
	30대	94	69.1	24.5	6.4
연 령	40대	191	67.5	23.6	8.9
댕	50대	297	69.7	23.2	7.1
	60대	231	61.5	29.0	9.5
	70세 이상	118	55.9	19.5	24.6
	서울	257	66.1	23.0	10.9
	경기/인천	307	66.8	23.1	10.1
71	부산/울산/경남	150	63.3	26.7	10.0
권 역	대구/경북	86	64.0	24.4	11.6
	광주/전남/전북	75	64.0	22.7	13.3
	대전/세종/충청	90	67.8	25.6	6.7
	강원/제주	36	58.3	30.6	11.1
۲-۱	남성	650	66.0	23.7	10.3
성	여성	351	64.4	25.1	10.5
정	진보	318	75.5	18.2	6.3
치 성	중도	393	66.4	24.2	9.4
성 향	보수	228	54.8	34.2	11.0

Q4. 선생님께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이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②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③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1	37.8	36.5	14.7	11.0
	만 18~29세	70	27.1	57.1	5.7	10.0
	30대	94	28.7	51.1	11.7	8.5
연 령	40대	191	34.6	34.0	20.4	11.0
댕	50대	297	43.1	30.3	18.5	8.1
	60대	231	43.3	33.3	14.7	8.7
	70세 이상	118	41.5	28.0	9.3	21.2
	서울	257	42.0	32.7	16.3	8.9
	경기/인천	307	35.8	34.9	14.7	14.7
	부산/울산/경남	150	36.7	39.3	17.3	6.7
권 역	대구/경북	86	34.9	40.7	17.4	7.0
	광주/전남/전북	75	53.3	26.7	10.7	9.3
	대전/세종/충청	90	38.9	36.7	13.3	11.1
	강원/제주	36	30.6	41.7	16.7	11.1
Д-1	남성	650	40.8	34.6	16.2	8.5
성	여성	351	35.3	36.5	14.0	14.2
정	진보	318	48.7	27.7	17.6	6.0
치 성	중도	393	38.4	35.6	14.5	11.5
성 향	보수	228	28.1	47.8	14.0	10.1

[계속]

Q5. 선생님께선 본인 인증을 해야만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뉴스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악성 댓글 근절, 타인 인격권 보호를 위해 찬성	② 표현 자유 침해하는 과도한 통제이므로 반대	③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1	68.2	26.4	5.4
	만 18~29세	70	72.9	22.9	4.3
	30대	94	73.4	18.1	8.5
연 령	40대	191	71.2	25.1	3.7
댕	50대	297	67.3	29.0	3.7
	60대	231	64.1	32.5	3.5
	70세 이상	118	62.7	24.6	12.7
	서울	257	60.7	33.1	6.2
	경기/인천	307	70.7	24.1	5.2
71	부산/울산/경남	150	71.3	23.3	5.3
권 역	대구/경북	86	65.1	30.2	4.7
	광주/전남/전북	75	62.7	32.0	5.3
	대전/세종/충청	90	76.7	18.9	4.4
	강원/제주	36	72.2	27.8	0.0
۲-۱	남성	650	67.7	27.7	4.6
성	여성	351	67.8	25.9	6.3
정	진보	318	65.1	32.1	2.8
치 성	중도	393	70.7	24.7	4.6
향	보수	228	71.5	25.0	3.5

Q6.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의 편집권 최소화를 위해 AI를 도입해 개인별 관심사를 반영해 뉴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배열 방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보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과거보다 긍정적	② 과거보다 부정적	③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1	31.3	48.0	20.7
	만 18~29세	70	34.3	52.9	12.9
	30대	94	34.0	47.9	18.1
연 령	40대	191	22.5	60.7	16.8
딩	50대	297	25.3	53.5	21.2
	60대	231	32.5	42.9	24.7
	70세 이상	118	50.8	22.9	26.3
	서울	257	30.4	46.3	23.3
	경기/인천	307	30.9	49.8	19.2
	부산/울산/경남	150	28.0	48.0	24.0
권 역	대구/경북	86	32.6	52.3	15.1
	광주/전남/전북	75	32.0	49.3	18.7
	대전/세종/충청	90	33.3	48.9	17.8
	강원/제주	36	33.3	36.1	30.6
٨-١	남성	650	31.7	49.1	19.2
성	여성	351	29.3	46.7	23.9
정	진보	318	25.8	56.6	17.6
치 성	중도	393	29.8	49.4	20.9
향	보수	228	38.6	40.4	21.1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보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긍정적 평가와 포털 사이트의 편향성 논란 등에 따른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전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①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②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③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1	39.9	49.1	11.0
	만 18~29세	70	47.1	41.4	11.4
	30대	94	36.2	51.1	12.8
연 령	40대	191	34.0	60.7	5.2
댕	50대	297	38.7	51.2	10.1
	60대	231	39.8	48.5	11.7
	70세 이상	118	51.7	30.5	17.8
	서울	257	42.0	47.1	10.9
	경기/인천	307	40.4	51.1	8.5
71	부산/울산/경남	150	34.0	53.3	12.7
권 역	대구/경북	86	37.2	51.2	11.6
'	광주/전남/전북	75	45.3	45.3	9.3
	대전/세종/충청	90	45.6	40.0	14.4
	강원/제주	36	27.8	58.3	13.9
Д-	남성	650	42.6	46.9	10.5
성	여성	351	35.0	53.6	11.4
 정	진보	318	38.1	54.7	7.2
치 성	중도	393	41.0	47.1	12.0
성 향	보수	228	39.9	51.3	8.8

	시사저널 여론조사 설문안		ID	2	3	0	6
조사지역	전국	조사방법		ARS(무선	RDD)	

안녕하십니까? 시사리서치에서 시사저널 의뢰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댓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응답해주신다면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A. 응답자구분

- SQ1. [나이]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8세 미만 [▶조사중단]

②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세 이상

SQ2. [지역] 선생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남/전북

⑥ 대전/충청/세종

- ⑦ 강원 /제주
- SO3. [성별] 선생님께선 남성이십니까? 여성이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SQ4. [정치성향] 선생님께선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 중도, 보수 가운데 어디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 ① 진보에 가깝다

② 중도에 가깝다

③ 보수에 가깝다

④ 잘 모르겠다

B. 핵심 문항

- Q1. [댓글 이용률] 선생님께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읽을 때 기사 하단의 댓글을 보는 편입니까, 보지 않는 편입니까.
 - ① 자주 본다
 - ② 때때로 보는 편이다
 - ③ 별로 보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보지 않는다
 - 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 [▶조사중단]
 - ⑥ 잘 모르겠다
- Q2. [다음 타임톡]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선 뉴스 하단에 댓글을 없애고 24시간 동안 채팅 형태로 의견을 나누는 타임톡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Q2-1]
- ② 모른다 [►Q3]
- Q2-1. [타임톡 평가] (Q2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에 한하여) 그렇다면 선생님께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댓글을 없애고 타임톡 서비스로 바꾼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조금 긍정적인 편이다
 - ③ 다소 부정적인 편이다
 - ④ 매우 부정적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Q3. [댓글 존폐] 선생님께선 네이버와 같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뉴스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댓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순기능이 있으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 ② 부작용이 있으므로 아예 폐지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Q4. [여론 영향] 선생님께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이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②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③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잘 모르겠다
- Q5. [댓글 실명제] 선생님께선 본인 인증을 해야만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뉴스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①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
 - ②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통제이므로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Q6. [AI편집 평가]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의 편집권 최소화를 위해 AI를 도입해 개인별 관심사를 반영해 뉴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배열 방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보십니까.
 - ①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 ②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
 - ③ 잘 모르겠다
- Q7. [포털 뉴스 영향]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보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긍정적 평가와 포털 사이트의 편향성 논란 등에 따른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전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①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 ② 언론사의 편집권과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 ③ 잘 모르겠다

종료인사	선생님의 귀중한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5, 02-3703-7054,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중단멘트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선 조사대상이 아니십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5, 02-3703-7054,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외멘트	